

농산촌체험마을 지역주민의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

- 산촌생태마을사업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이덕재* · 김종호** · 전준현***

*상지대학교 산림과학과 ·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과

Participation Intention of Activity-oriented Program of Local Residents of Rural and Mountain Villages

- Policy Implication for the Eco-Mountain Village Project -

Lee, Duk-Jae* · Kim, Jong-Ho** · Jeon, Jun-Heon***

*Dept. of Forest Science, Sangji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Dept. of Forest Management,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ABSTRACT

Factors for promoting the resident participation in mountain villages are suggested to introduce the activity-oriented program of green tourism using a multinomial logit model(MNLM). Direct surveying,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performed on local residents in the different types of rural tourism villages such as mountain villages, agricultural themed villages, and the mixed types of villages.

The MNLM revealed that participation intention in the program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males, those with lower education, and residents in mountain villages. The participation intention of the program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increase of expected problems not from the program itself, but from the results of the program such as income distribution and nature destruction. Participation intention also increased with the indirect effects of an investment by the Village Development Project, such as local cooperativeness, public mind, etc. It was suggested that to introduce the activity-oriented program in mountain villages, negative effects from the results had to be minimized, and positive effects from the indirect changes between local residents had to be maximized through better communication and policy endeavors.

Key Words: *Rural Tourism, Mountain Village Development, Less Favored Area, Natural Landscapes, Multinomial Logit Model*

I. 서론

자연환경과 경관에 초점을 맞춘 생태적으로 친화적인 관광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림을 비롯한 자연경관과

같은 어메니티(Amenity) 요소는 휴양·관광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본질적이며 잠재적인 요인이다(Keith and Fawson, 1995; Keith et al., 1996; Lee and Mitchell, 2007). 또한, 자연 환경은 녹색관광에 있어서도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상이며,

Corresponding author: Duk-Jae Lee, Dept. of Forest Science, Sangji University, Kangwon 220-702, Korea, Tel.: +82-33-730-0525, E-mail: dukjlee@sangji.ac.kr

동시에 활동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 형태 중의 하나이다(윤희정과 임승빈, 2004). 이러한 자연환경자원의 활용에 근거한 관광은 체험을 통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교육적 기회의 제공 등을 강조하게 된다(이관규, 2006; 홍성권과 김성일, 2002).

농산촌은 자연환경자원과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문화역사자원을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객을 유인한다. 농촌관광객들은 농촌을 휴양, 휴식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농촌생활 속에서의 체험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따라서 농촌관광에 있어 체험프로그램과 관련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전인철 등, 2007). 이러한 경향은 산촌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한 체험관광이 두드러지게 행해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산촌은 삶의 질 요소로서의 정주위치 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Graves, 1983; Gottlieb, 1994), 산촌 주변의 산림이나 개발되지 않은 자연자원 속에서의 체험활동을 원하는 관광객을 유인한다. 산촌은 이렇듯이 관광자원의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산촌개발의 성공요인에서도 관광체험사업의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효과가 유효하였다는 보고가 있다(서정원 등, 2006; 산림청, 2005).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산촌개발마을사업('07 이후 산촌생태마을사업)은 그동안 산촌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개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농업생산성 조건이 불리한 산촌을 진흥시키는 시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사업이다(김종호와 서정원, 2005). 따라서 이제 산촌은 관광체험사업의 도입을 통하여 하드웨어적 기반 위에 체험프로그램의 시행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있다.

산촌은 농촌과 달리 제한된 토지이용 조건에 의하여 농촌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한국산지보전협회, 2005). 조건불리지역이 많은 산촌은 결국 차별화된 접근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는데, 산촌개발사업의 시행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해, 그리고 산촌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특히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체험관광사업의 도입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은 사업성공의 중요한 변수이다. 그러므로 본 논고에서는 농산촌체험마을 지역주민의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과 관련하여 다항로짓모형을 구성하여 그 참여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체험프로그램 도입 시 산촌 지역주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산촌체험관광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대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사

그동안 농촌관광에 있어서 관광수요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

서도 많이 있어 왔지만, 공급자 측면에서의 지역주민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이경희(2004)는 농촌관광을 농촌 지역주민이 공급하는 농촌체험활동이 제공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농촌관광에 대한 농촌지역주민의 의식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혜민(2006)은 주민참여를 농촌마을 개발계획의 수립·시행과정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이해가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인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농촌마을개발 정책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실태 및 성과 평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안종현(2007)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마을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단계별로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개발사업 후 영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국외의 문헌에서는, 자연자원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다(Simmons, 1994; Prentice, 1993; Archabald and Naughton-Treves, 2001; Ryan and Montgomery, 1994). 여기서 관광개발과 관련한 지역사회참여는 주로 의사결정과정이나 관광개발의 편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Tosun, 2000; McIntosh and Goeldner, 1986). 그 이유는 지역주민이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함으로써, 소득, 고용, 교육의 증대 등을 위하여 관광개발에 관한 지역사회 목표를 결정하며(Brohman, 1996; Pearce et al., 1996), 관광개발로 인한 편익을 확보하고, 동시에 전통적인 삶의 양식과 가치가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Lankford and Howard, 1994; Linderberg and Johnson, 1997; Mitchell and Reid, 2001; Sheldon and Abenoja, 2001).

체험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의 사회인구적 변수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연령, 성별, 교육정도, 거주기간, 결혼여부 등이 사회참여의 변수로서 제시되고 있다(Foskett 1955; Hyman and Wright, 1971; 박덕병과 조영숙, 2005).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달성하려는 사업목표에 따라 사회참여가 다르게 나타난다(Krech et al., 1962). 사업목표 달성을 통한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재준과 이상문(2003)은 자원을 통한 소득증대, 마을비전의 구체화와 같은 지역사회 목표를 주민참여와 관련한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Whyte와 Williams(1971)는 대인적 신뢰가 높고 일반의 폭넓은 토론이 가능한 사회집단에서는 사회참여가 지역사회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고 하면서, 주민의 내부적 결속력의 정도가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Tosun(2000)은 관광개발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의 제약요인으로서 이러한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요인 이외에 관광사

업 운영절차의 요인을 지적하였다. 주대진과 김진모(2004)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과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들과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주민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과 주민들의 역량부족을 지적하였다. 김경량 등(2006)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평가체계를 개발하면서, 그 평가항목으로서 소득기반학충, 생활여건개선, 지역역량 강화,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태운과 노경임(2004)은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체험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 부족과 행정·재정 지원의 부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의 부족, 참여도 부족, 전문가 및 강사의 부족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재정지원의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이 지적한대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 부족은 지역주민의 운영능력 및 경험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이에 대해 김혜민(2006)은 주민에 대한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농산촌관광 지역주민의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의식 및 참여 의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마을개발사업을 통한 농산촌관광 잠재력이 큰 마을을 조사 대상지로 하였다. 국내에서 각 부처가 추진하는 마을단위 농촌개발사업으로는 산림청의 산촌개발마을('07년 이후 산촌생태마을),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 환경부의 생태우수마을 등이 있다. 이중에서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마을 내에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농촌개발 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과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이다. '산촌생태마을' 사업은 기존의 산촌개발마을에 새로이 체험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농산촌 체험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우선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1차 후보로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그리고 '산촌개발마을' 수행이 완료된 지역들을 선정하였다. 2006년 기준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 2~3년이 경과되면 사업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03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농촌관광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로서 농촌관광 대상지에 대한 접근성을 감안하여 농촌관광 잠재적 시장이 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서울에서의 접근성과 지리적 입지 여건이 유사한 마을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산림청의 산촌개발마을로서 경기도 파주시 객현리와 강원도 횡성군 병지방리, 농촌체험마을로서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인 경기도 이천시 부래미마을과 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인 경기도 이천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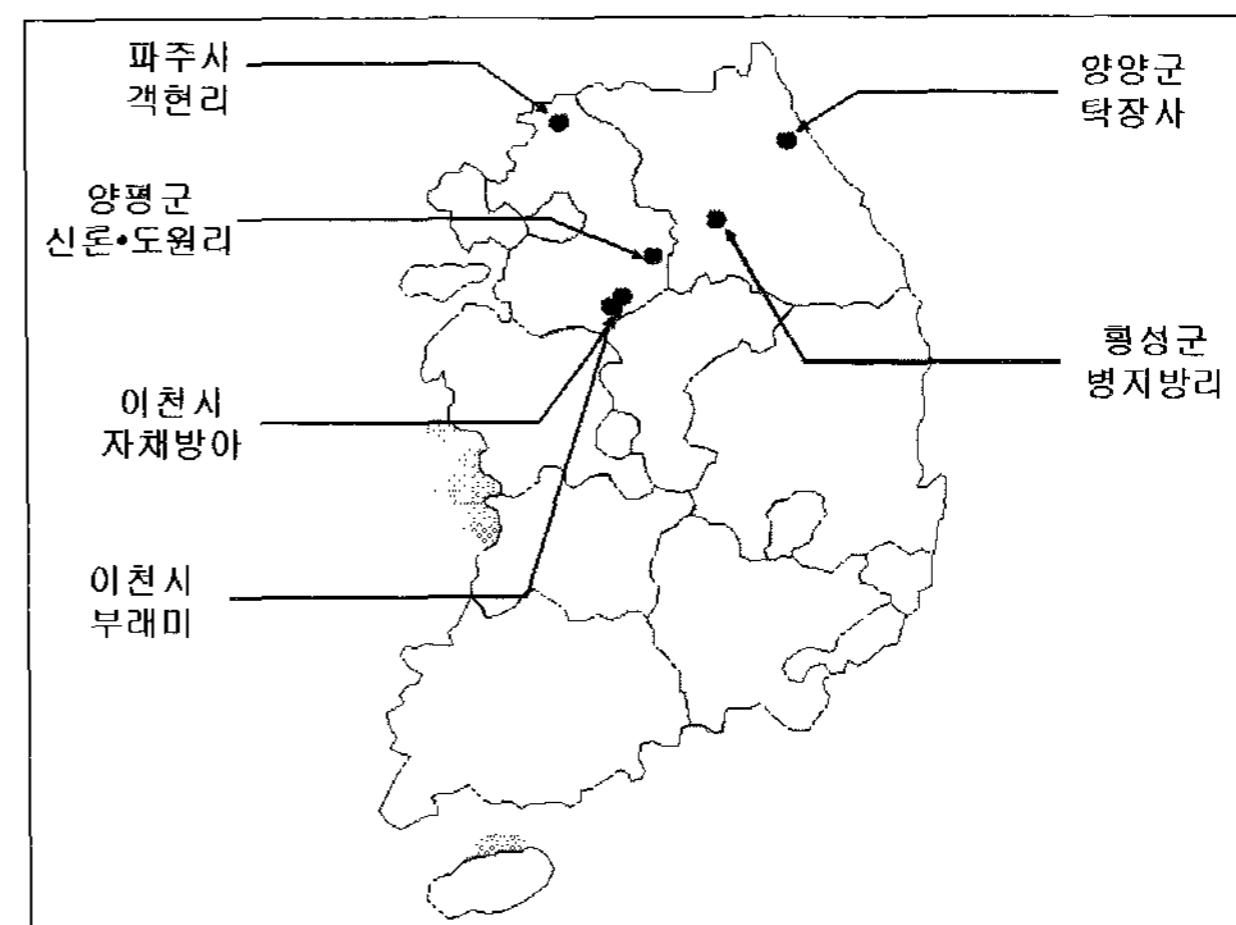


그림 1. 조사 대상마을 위치

채방아마을, 그리고 산촌개발사업이 완료된 마을에 농촌체험마을사업이 들어간 혼합형 마을로서 경기도 양평군 신론·도원리와 강원도 양양군 탁장사마을 등 비교적 수도권 근접의 6개 마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그림 1 참조).

6개 대상마을의 토지이용면적과 가구 및 인구수를 보면(표 1 참조), 산촌개발마을은 임야율 70%를 상회하는 지역으로 병지방리의 경우 임야율이 가장 높았고, 탁장사마을은 인구수는 가장 적으나 임야면적이 가장 넓은 마을이었다. 반면, 객현리 및 신론·도원리는 상대적으로 농경지가 많은 분포를 보였고, 인구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촌체험마을인 부래미마을과 자채방아마을은 비슷한 농경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수에 있어서는 자채방아마을이 약 4배 가량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06년 8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마을별로 2~3일 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각 조사대상지역들에 대해 연구팀이 방문하여 조사대상지역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별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마을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사항, 체험관광사업에 관한 내용, 마을개발사업 만족도에 관한 사항, 소득변화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 결과 및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마을발전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응답 시간은 약 15~35분 정도 소요되었다. 1가구당 1명만을 조사하고, 한 조사대상 지역당 평균 3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는 것으로 목표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각 항목에 대한 빈도수와 백분율을 이용한 기술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을주민의 체험 프로그램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 참여와 비참여, 모르겠음의 세 응답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항로짓 회귀분석(Multinomial Logit Model: MNLM)을 시행하였다.

언급한 대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운영절차 측면에서 주민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

표 1. 대상마을 현황

| 대상지(마을) | 농경지(ha) | | | 임야(ha) | 기타(ha) | 인구수(명) | | | 세대수 |
|---------|---------|-----|-------|--------|--------|--------|-----|-----|-----|
| | 소계 | 논 | 밭(과수) | | | 소계 | 남 | 여 | |
| 객현리 | 206 | 60 | 146 | 800 | 68 | 307 | 170 | 137 | 115 |
| 병지방리 | 161 | 24 | 137 | 3,723 | - | 167 | 84 | 83 | 76 |
| 부래미 | 60 | 26 | 34 | - | - | 65 | 30 | 35 | 31 |
| 신론·도원 | 228 | 125 | 103 | 1,967 | - | 222 | 96 | 126 | 108 |
| 자체방아 | 73 | 40 | 33 | - | 10 | 286 | 152 | 134 | 100 |
| 탁장사 | 43 | 23 | 20 | 53,446 | 9,369 | 112 | 56 | 56 | 57 |

과 주민들의 역량 부족을 들 수 있다(주대진과 김진모, 2004). 이러한 마을주민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갈등과 역량 부족은 마을개발사업의 소프트웨어적 발전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농산촌관광 체험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는데 있어서도 동일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마을개발 사업의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체험프로그램 참여의 향을 저해하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마을개발사업이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정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사업의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외부로부터 지원이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마을개발사업의 투자효과에 대한 인식이 곧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향의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김경량 등(2006)이 제시한 소득기반 확충, 생활여건 개선, 지역역량 강화,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마을개발사업의 효과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세분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득기반확충과 관련해서는 주민 소득의 증대, 일자리의 증가라는 측면, 생활여건개선과 관련해서는 마을환경의 개선, 공공시설의 향상이라는 측면, 지역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주민단결심의 향상, 마을 인심의 좋아짐, 외지인의 방문 증가의 측면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저해하는 다른 원인인 역량 부족 또한 체험관광사업을 시행·운영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이 깊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체험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 부족과 행정·재정 지원의 부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의 부족, 참여도 부족, 전문가 및 강사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박태윤과 노경임, 2004).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체험시설, 마케팅 홍보 등에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자료 부족으로 인한 체험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전문인력 및 교육프로그램 부재, 이외에도 체험사업을 통한 소득분배 문제, 마을의 고유성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지역주민의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① 사회

인구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마을형태, 고향 여부, 직업, 학력 등을 적용하였으며, ② 체험사업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의 측면과, ③ 마을개발사업 후 효과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의 각 세부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이후 명료한 MNLM을 형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변수를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의미 있는 요인으로 축약하고, 생산된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서 사용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표 2 참조).

표 2.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코딩

| 범주 | 변수 | 코딩값 |
|----------------------------------|--------------|---------------------------------|
| 종속변수 |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 | 있다(1), 없다(2), 모르겠다(3) |
| ① 사회 인구학적 요인 | 성별 | 남(1), 여(2) |
| | 연령 | 50세 이하(1), 51-60세(2), 61세 이상(3) |
| | 마을형태 | 산촌개발마을(1), 농촌체험마을(2), 혼합형(3) |
| | 고향 여부 | 고향(1), 고향 아님(2) |
| | 직업 | 농림수축산업(1), 기타(2) |
| | 학력 | 중졸 이하(1), 고졸 이상(2) |
| 독립 변수 | 체험시설 낙후협소 | 요인분석에 의한 요인점수 |
| |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 |
| |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 | |
| | 마케팅 홍보 부족 | |
| | 운영능력 경험 부족 | |
| | 교육프로그램 부재 | |
| | 소득분배 문제 | |
| | 고유성, 자연환경 훼손 | |
| ③ 마을개발 사업의 효과에 대한 인식 | 마을주변 환경개선 | 요인분석에 의한 요인점수 |
| | 공공시설 향상 | |
| | 주민 단결심 향상 | |
| | 주민 소득 향상 | |
| | 일자리 증가 | |
| | 마을 인심 좋아짐 | |
| | 외지인 방문 증가 | |

V. 결과 및 고찰

각 체험마을 사례대상별로 농산촌관광 지역주민의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향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목표로 한 6개 마을 180부의 설문지 중 총 160부의 유효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각 조사대상지 간의 응답 비율은 그림 2와 같다.

1. 사회인구적 특성

전체적인 조사 집단은 61세 이상(35.7%), 남성(64.6%), 고향살이(54.1%), 농림수축산업 종사자(64.0%),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56.1%)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를 대상마을별로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피설문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마을마다 비슷한 양상을 보여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촌개발마을인 객현리와 병지방리의 경우에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객현리가 42세 정도로 제일 낮았으며, 병지방리가 66세 정도로 제일 높았다. 농촌체험마을인 부래미와 자채방아마을의 경우는 51~60세가 많은 분포를 보인 반면, 혼합형 마을인 신론·도원리와 탁장사마을은 61세 이상이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학력분포 역시 평균연령대가 가장 높은 병지방리에서는 중졸 이하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평균연령대가 가장 낮은 객현리에서는 고졸 이상의 비율이 다른 마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개 마을의 학력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직업의 경우, 설문에 응한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임업/임산업, 농수축산업에 종사하였으며, 기타로는 상업/유통업에 종사한 경우가 많았다.

2.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

전체 응답자 중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표 3. 조사대상자의 특성(단위: 빈도(%))

| 구분 | 범주 | 응답률 |
|-------|--------|-----------|
| 마을형태 | 산촌개발마을 | 56(35.0) |
| | 농촌체험마을 | 51(31.9) |
| | 혼합형 | 53(33.1) |
| | 무응답 | 0 |
| 성별 | 남성 | 102(64.6) |
| | 여성 | 56(35.4) |
| | 무응답 | 2 |
| 연령 | 50세 이하 | 51(32.5) |
| | 51~60세 | 50(31.8) |
| | 61세 이상 | 56(35.7) |
| | 무응답 | 3 |
| 고향 여부 | 고향 | 85(54.1) |
| | 고향 아님 | 72(45.9) |
| | 무응답 | 3 |
| 학력 | 중졸 이하 | 87(56.1) |
| | 고졸 이상 | 68(43.9) |
| | 무응답 | 5 |
| 직업 | 농림수축산업 | 96(64.0) |
| | 기타 | 54(36.0) |
| | 무응답 | 10 |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51.1%)으로 높게 나타나,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경우(23.4%)의 약 2배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사회 인구학적 요인별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교차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표 5 참조).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인 경우에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75.7%),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 = 9.36, p=0.009$). 그러나 연령별로는 참여의향에 유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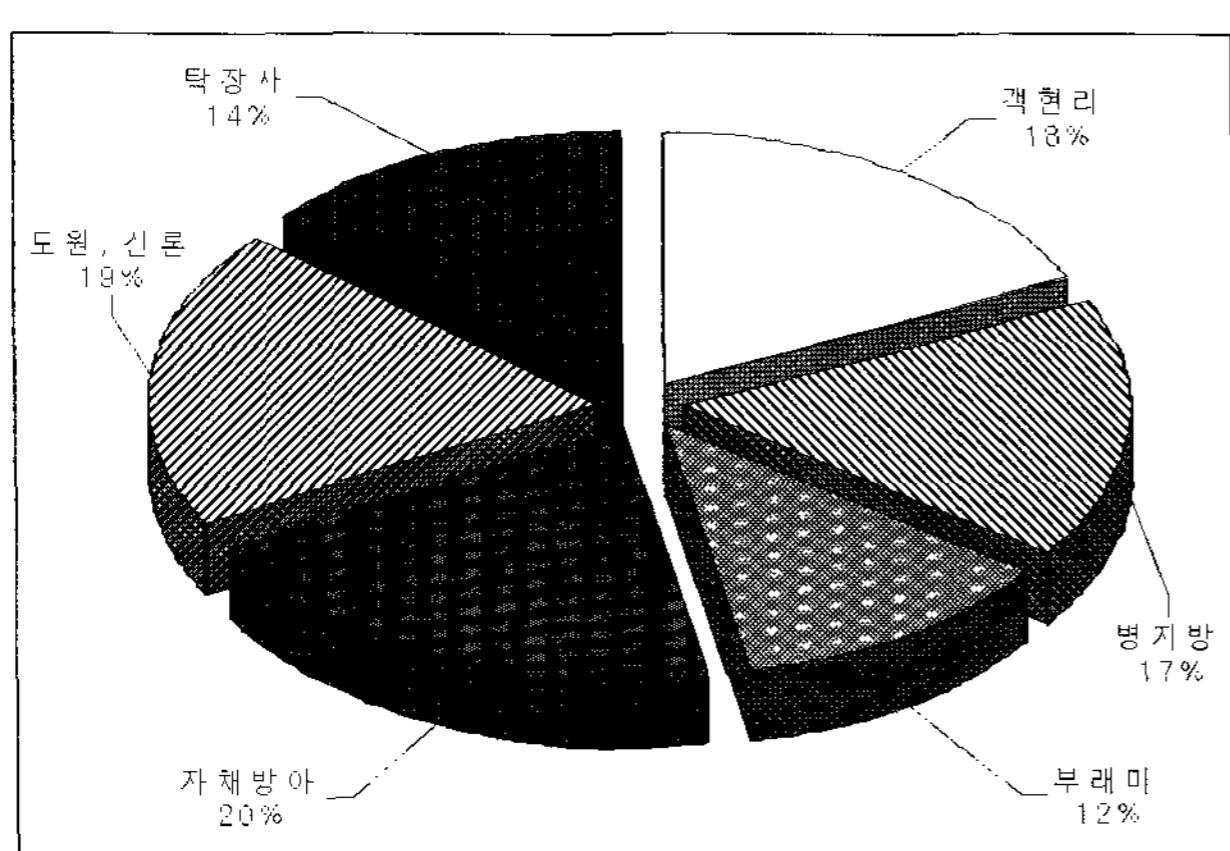


그림 2. 마을 간 설문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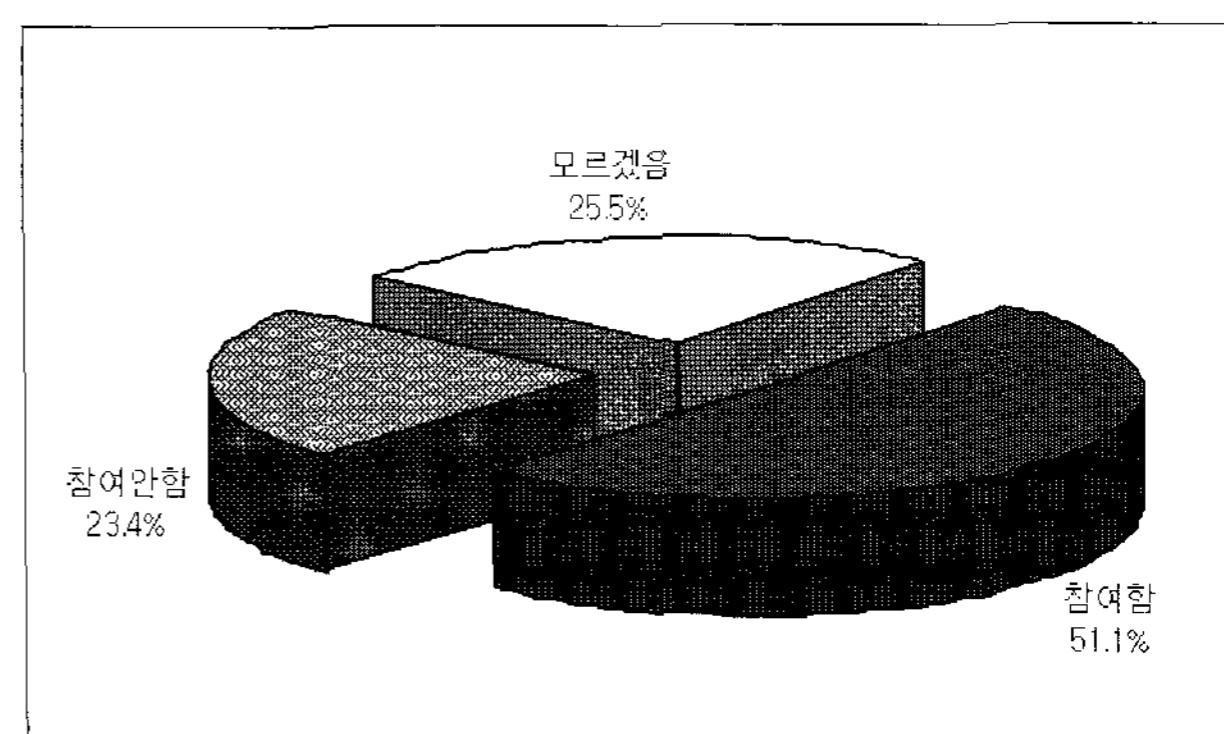


그림 3.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

표 4. 마을별 조사대상자의 특성

(단위: 빈도(%))

| 구분 | | 산촌개발마을 | | 녹색농촌 | 농촌전통 | 산촌+녹색 | 산촌+농촌 |
|----------|--------|----------|----------|----------|----------|----------|----------|
| | | 객현리 | 병지방리 | 부래미 | 자채방아 | 신론·도원 | 탁장사 |
| 성별 | 남 | 21(72.4) | 22(81.5) | 10(52.6) | 18(60.0) | 19(61.3) | 12(54.5) |
| | 여 | 8(27.6) | 5(18.5) | 9(47.4) | 12(40.0) | 12(38.7) | 10(45.5) |
| 연령 | 50세 이하 | 21(72.4) | 2(7.4) | 5(27.8) | 9(30.0) | 10(32.3) | 4(18.2) |
| | 51~60세 | 8(27.6) | 2(7.4) | 12(66.7) | 14(46.7) | 7(22.6) | 7(31.8) |
| | 61세 이상 | 0(0.0) | 23(85.2) | 1(5.6) | 7(23.3) | 14(45.2) | 11(50.0) |
| 고향 여부 | 고향 | 19(65.5) | 13(48.1) | 9(50.0) | 17(56.7) | 12(38.7) | 15(68.2) |
| | 고향 아님 | 10(34.5) | 14(51.9) | 9(50.0) | 13(43.3) | 19(61.3) | 7(31.8) |
| 학력 | 중졸 이하 | 6(20.7) | 22(81.5) | 10(55.6) | 17(56.7) | 16(51.6) | 16(84.2) |
| | 고졸 이상 | 23(79.3) | 5(18.5) | 8(44.4) | 13(43.3) | 15(48.4) | 4(15.8) |
| 직업 | 농림수축산업 | 20(69.0) | 23(95.8) | 13(72.2) | 14(46.7) | 16(57.1) | 10(47.6) |
| | 기타 | 9(31.0) | 1(4.2) | 5(27.8) | 16(53.3) | 12(42.9) | 11(52.4) |

표 5. 사회인구학적 요인별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

a: 참여의향과 성별의 관계(단위: 빈도(%))

| 성별 | 참여의향 | | | | 합계 |
|----|----------|----------|----------|------------|----|
| | 참여함 | 참여안함 | 모르겠음 | 합계 | |
| 남 | 53(60.2) | 17(19.3) | 18(20.5) | 88(100.0) | |
| 여 | 17(33.3) | 16(31.4) | 18(35.3) | 51(100.0) | |
| 합계 | 70(50.4) | 33(23.7) | 36(25.9) | 139(100.0) | |

 $\chi^2=9.36, p=0.009, df=2, N=139$

b: 참여의향과 연령의 관계(단위: 빈도(%))

| 연령 | 참여의향 | | | | 합계 |
|--------|----------|----------|----------|------------|----|
| | 참여함 | 참여안함 | 모르겠음 | 합계 | |
| 50세 이하 | 22(45.8) | 14(29.2) | 12(25.0) | 48(100.0) | |
| 51~60세 | 24(52.2) | 11(23.9) | 11(23.9) | 46(100.0) | |
| 61세 이상 | 23(52.3) | 8(18.2) | 13(29.5) | 44(100.0) | |
| 합계 | 69(50.0) | 33(23.9) | 36(26.1) | 138(100.0) | |

 $\chi^2=1.72, p=0.787, df=4, N=138$

c: 참여의향과 거주마을형태의 관계(단위: 빈도(%))

| 거주마을 형태 | 참여의향 | | | | 합계 |
|---------|----------|----------|----------|------------|----|
| | 참여함 | 참여안함 | 모르겠음 | 합계 | |
| 산촌개발마을 | 28(68.3) | 3(7.3) | 10(24.4) | 41(100.0) | |
| 농촌체험마을 | 24(47.1) | 17(33.3) | 10(19.6) | 51(100.0) | |
| 혼합형마을 | 20(40.8) | 13(26.5) | 16(32.7) | 49(100.0) | |
| 합계 | 72(51.1) | 33(23.4) | 36(25.5) | 141(100.0) | |

 $\chi^2=12.13, p=0.016, df=4, N=141$

d: 참여의향과 고향여부의 관계(단위: 빈도(%))

| 고향여부 | 참여의향 | | | | 합계 |
|-------|----------|----------|----------|------------|----|
| | 참여함 | 참여안함 | 모르겠음 | 합계 | |
| 고향 | 47(61.8) | 18(23.7) | 11(14.5) | 76(100.0) | |
| 고향 아님 | 22(35.5) | 15(24.2) | 25(40.3) | 62(100.0) | |
| 합계 | 69(50.0) | 33(23.9) | 36(26.1) | 138(100.0) | |

 $\chi^2=13.49, p=0.001, df=2, N=138$

e: 참여의향과 직업의 관계(단위: 빈도(%))

| 직업 | 참여의향 | | | | 합계 |
|--------|----------|----------|----------|------------|----|
| | 참여함 | 참여안함 | 모르겠음 | 합계 | |
| 농림수축산업 | 50(61.7) | 13(16.0) | 18(22.2) | 81(100.0) | |
| 기타 | 17(33.3) | 18(35.3) | 16(31.4) | 51(100.0) | |
| 합계 | 67(50.8) | 31(23.5) | 34(25.8) | 132(100.0) | |

 $\chi^2=10.92, p=0.004, df=2, N=132$

f: 참여의향과 학력의 관계(단위: 빈도(%))

| 학력 | 참여의향 | | | | 합계 |
|-------|----------|----------|----------|------------|----|
| | 참여함 | 참여안함 | 모르겠음 | 합계 | |
| 중졸 이하 | 40(55.6) | 17(23.6) | 15(20.8) | 72(100.0) | |
| 고졸 이상 | 27(42.2) | 16(25.0) | 21(32.8) | 64(100.0) | |
| 합계 | 67(49.3) | 33(24.3) | 36(26.5) | 136(100.0) | |

 $\chi^2=3.09, p=0.213, df=2, N=136$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chi^2=1.72, p=0.787$). 마을형태별로는 마을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chi^2=12.13, p=0.016$), 산촌개발마을의 경우에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8.9%). 지금 사는 마을이 자신의 고향인 경우에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이 높았으며(68.1%),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chi^2=13.49, p=0.001$). 직업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chi^2=10.92, p=0.004$), 농림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응답자인 경우에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74.6%). 반면, 학력의 경우에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의 응답자 사이에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3.09, p=0.213$)

3. 체험사업 운영과 마을개발사업의 효과에 대한 인식

1) 체험사업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의 인식

체험사업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지역주민의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의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체험프로그램의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먼저 체험사업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항목에 대하여 인식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자연환경훼손 문제와 소득분배 문제는 체험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체험사업 운영자체에서 기인하기보다는 사업결과와 보다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6 참조). 마을별로는 객현리, 병지방리, 자채방아마을 등은 체험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항목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특히 녹색농촌체험마을인 부래미마을의 경우에는 체험시설 낙후협소,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운영비 부족, 마케팅 홍보 부족, 소득분배 문제 등 상대적으로 많은 항목에 있어서 체험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각 체험사업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사이에 상관도가 높은 변

수들을 모아 주요한 요인으로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이 62.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제 1요인은 체험시설 낙후협소, 체험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운영비 부족, 마케팅 및 홍보 부족, 운영능력 및 경험 부족, 교육프로그램 부재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자체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요인이고, 제 2요인은 소득분배 문제, 자연환경 훼손문제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결과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요인으로 요약된다.

2) 마을개발사업의 효과에 대한 인식

마을개발사업은 체험프로그램 도입의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사업결과에 따라 향후 체험프로그램의

표 7. 체험사업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의 회전된 요인행렬

| 체험사업 운영 문제점 | 제1요인 | 제2요인 |
|-------------|--------------|--------------|
| | 운영자체와 관련한 문제 | 운영 결과로 인한 문제 |
| 체험시설 낙후 협소 | 0.791 | -0.157 |
|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 0.715 | 0.292 |
|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 | 0.807 | 0.034 |
| 마케팅 홍보 부족 | 0.786 | 0.228 |
| 운영능력 경험 부족 | 0.626 | 0.363 |
| 교육프로그램 부재 | 0.668 | 0.419 |
| 소득분배 문제 | 0.154 | 0.824 |
| 고유성, 자연환경훼손 | 0.063 | 0.758 |
| 고유치 | 3.740 | 1.255 |
| 공통분산(%) | 46.753 | 15.685 |
| 누적비율(%) | 46.753 | 62.438 |

표 6. 마을별 체험사업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 구 분 | 체험시설 낙후 협소 |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 | 마케팅 홍보 부족 | 운영능력 경험 부족 | 교육프로그램 부재 | 소득분배문제 | 고유성, 자연환경훼손 |
|---------|------------|-------------|-------------|-----------|------------|-----------|--------|-------------|
| 객현리 | 3.83 | 3.91 | 3.91 | 3.83 | 3.74 | 3.91 | 2.70 | 2.57 |
| 병지방리 | 3.08 | 3.00 | 3.00 | 2.91 | 3.00 | 3.00 | 3.38 | 3.00 |
| 부래미 | 2.83 | 2.74 | 2.89 | 2.06 | 3.00 | 3.06 | 2.47 | 3.18 |
| 자채방아 | 3.23 | 3.00 | 3.34 | 3.20 | 3.21 | 3.30 | 2.90 | 2.37 |
| 신론 · 도원 | 2.63 | 3.64 | 2.81 | 2.76 | 3.18 | 3.14 | 3.27 | 2.83 |
| 탁장사 | 2.81 | 3.35 | 3.25 | 3.35 | 3.15 | 3.35 | 2.95 | 2.80 |
| 전체 | 3.09 | 3.29 | 3.25 | 3.09 | 3.25 | 3.34 | 2.91 | 2.93 |

주: 5점 리커트 척도(1점-매우 그렇지 않다, 3점-그저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표 8. 마을별 마을개발사업 효과에 대한 인식

| 구 분 | 마을주변 환경개선 | 공공시설 향상 | 주민단결심 향상 | 주민소득 향상 | 일자리 증가 | 마을인심 좋아짐 | 외지인 방문 증가 |
|---------|-----------|---------|----------|---------|--------|----------|-----------|
| 객현리 | 3.52 | 3.69 | 3.07 | 3.45 | 3.31 | 3.21 | 4.48 |
| 병지방리 | 3.09 | 3.45 | 3.25 | 2.83 | 2.19 | 3.13 | 3.81 |
| 부래미 | 3.69 | 3.69 | 3.72 | 4.00 | 3.81 | 3.00 | 4.38 |
| 자채방아 | 3.57 | 3.24 | 2.86 | 2.86 | 2.66 | 2.90 | 4.03 |
| 신론 · 도원 | 2.38 | 2.82 | 2.30 | 2.39 | 2.41 | 2.15 | 3.68 |
| 탁장사 | 3.59 | 3.48 | 3.45 | 3.19 | 2.43 | 3.24 | 3.95 |
| 전체 | 3.27 | 3.37 | 3.05 | 3.05 | 2.77 | 2.92 | 4.05 |

주: 5점 리커트 척도(1점-매우 그렇지 않다, 3점-그저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도입 및 실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로서, 기존 마을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표 8 참조). 대체로 마을개발사업을 통해 마을 내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일자리 증가'나 '마을인심 좋아짐'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을별로는 객현리, 병지방리, 부래미마을, 탁장사마을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항목에 있어서 마을개발사업으로 인한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채방아마을과 신론 · 도원리 등은 '일자리 증가'나 '마을인심 좋아짐' 이외에도 '주민단결심', '주민소득' 등에서도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산촌개발마을이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들어간 신론 · 도원리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 마을개발사업으로 인한 변화를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각 마을개발사업 효과 사이에 상관도가 높은 변수들을 모아 의미 있는 요인으로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주요인이 65.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제 1요인은 생활기반 공공시설 개선, 소득 증가, 일자리 증가, 외지인 방문 증가 등으로서 마을개발사업의 직접적인 투자효과와 관련한 마을모습의 표면적이고 일차적인 변화이고, 제 2요인은 마을주변 환경개선, 단결심 높아짐, 마을 인심 좋아짐 등 마을개발사업의 간접적인 투자효과와 관련한 마을모습의 내재적이고 이차적인 변화로서 축약될 수 있다.

4.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 MNLM)

1) 참여관련요인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

체험사업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과 마을개발사업으로 인한 효과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MNLM을 구성하였다. 모형 형성에 사용된 변수로는 연

표 9. 마을개발사업 인식에 관한 회전된 요인행렬

| 마을개발사업 인식 | 제1요인 | 제2요인 |
|-----------|---------------|---------------|
| | 투자로 인한 일차적 변화 | 투자로 인한 이차적 변화 |
| 공공시설 향상 | 0.600 | 0.520 |
| 주민소득 향상 | 0.695 | 0.451 |
| 일자리 증가 | 0.789 | 0.127 |
| 외지인방문 증가 | 0.763 | 0.061 |
| 마을주변환경 개선 | 0.497 | 0.528 |
| 주민단결심 향상 | 0.227 | 0.799 |
| 마을인심 좋아짐 | 0.055 | 0.890 |
| 고유치 | 3.541 | 1.009 |
| 공통분산(%) | 50.589 | 14.416 |
| 누적비율(%) | 50.589 | 65.004 |

구방법의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종속변수는 체험 프로그램 참여의향으로서 참여, 비참여, 모르겠음의 세 응답이었으며, 독립변수는 체험사업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과 마을개발사업 후 효과에 대한 인식이 투입되어 각각의 변수를 요인분석하여 생산된 요인점수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과 관련하여 체험사업 운영의 결과로 인한 문제점이 증가하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낮아지고, 반면 마을개발사업의 투자로 인한 이차적 변화와 같이 간접적 투자효과가 상승하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그러나 이는 구성된 모형이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이기는 하나 모형 전체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나($\rho^2 = 0.12$), 추가적인 사회인구변수의 반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참여관련요인과 사회인구변수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

표 10. 참여 관련 변수만의 다항로짓모형

| 구분 | 아니오/예 | | 모르겠음/예 | |
|---------------|---------------|----------|----------|----------|
| | 계수 | 계수의 지수함수 | 계수 | 계수의 지수함수 |
| 상수항 | -0.705** | - | -0.616** | - |
| 체험사업 운영 후 문제점 | 운영과 관련한 문제 | -0.346 | 0.707 | -0.063 |
| | 운영 결과로 인한 문제 | 0.594** | 1.811 | 0.617** |
| 마을개발사업 후 효과 | 투자로 인한 일차적 변화 | -0.379 | 0.685 | -0.269 |
| | 투자로 인한 이차적 변화 | -0.881* | 0.415 | -0.621 |

 $\chi^2=25.479, p=0.001, df=8, N=101, -2 \text{ loglikelihood}=186.605, \rho^2=0.120$

*: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 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참여 관련 요인으로 체험사업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과 마을 개발사업으로 인한 마을의 변화와 더불어 조사 응답자의 사회 인구변수를 고려하여 MNLM을 구성하였다(표 11 참조). 전체 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chi^2=78.05, p<0.001$), 적합성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rho^2=0.37$). 도출된 MNLM은 데이터를 적합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참여 관련 변수만으로 구성된 위의 MNLM에서의 경우와 같이, 체험사업 운영의 결과와 관련한 문제점 요인과 마을개발사업의 간접적 투자효과와 관련한 주민들 사이의 내재적이고 이차적인 변화 요인이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사회인구변수의 도입으로 인한 모형 설명의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분배문제나 자연환경훼손과 같은 체험프로그램 사업 운영의 결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요인이 증가하면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이 감소하는 반면, 마을주변 환경개선, 마을인심, 주민 단결심과 같은 마을개발사업의 간접적 투자효과와 관련한 이차적인 변화 요인이 증가하면,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인구변수 중에서 연령, 고향 여부, 직업에 따라서는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에 있어서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 체험마을형태,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통

표 11. 체험프로그램 참여 의향 다항로짓모형

| 구분 | 아니오/예 | | 모르겠음/예 | |
|--------|----------------|----------|----------|----------|
| | 계수 | 계수의 지수함수 | 계수 | 계수의 지수함수 |
| 상수항 | 2.401 | - | 4.888* | - |
| 참여관련변수 | 운영과 관련한 문제 | -0.685 | 0.504 | -0.385 |
| | 운영 결과로 인한 문제 | 0.812** | 2.252 | 1.141* |
| | 투자로 인한 일차적 변화 | -0.466 | 0.627 | -0.507 |
| | 투자로 인한 이차적 변화 | -0.837** | 0.433 | -0.163 |
| 사회인구변수 | 성별(참조: 여성) | 남 | -3.089* | 0.046 |
| | 연령(참조: 61세 이상) | 50세 이하 | -1.010 | 0.364 |
| | | 51~60세 | -0.891 | 0.410 |
| | 마을(참조: 혼합형) | 산촌 | -3.061** | 0.047 |
| | | 농촌 | 1.249 | 3.487 |
| | 고향여부(참조: 아니오) | 고향 | 1.662 | 5.268 |
| | 직업(참조: 기타) | 농림수업 | -0.135 | 0.874 |
| | 학력(참조: 고졸이상) | 중졸이하 | -3.063* | 0.047 |

 $\chi^2=78.05, p=0.000, df=24, N=101, -2 \text{ loglikelihood}=132.64, \rho^2=0.370$

*: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 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별 중요도를 교차승비(Odds ratio)에 의한 계수의 지수함수(Exponential function of coefficients)를 통해 보면, 각 참조단위(Reference)에 비하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자 하는 의향이 약 9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성별의 경우에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참여의향을 나타냈으며, 농산촌 체험마을의 경우에 기존 산촌개발사업이 완료된 마을에 농촌체험마을사업이 투입된 신론·도원리와 탁장사마을에 비하여 산촌개발사업만이 이루어진 객현리와 병지방리의 경우에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이 높았으며, 교육정도의 경우에 중졸 이하의 학력 수준을 가진 응답자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보다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본 논문은 농산촌 체험마을 지역주민의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과 관련하여 다항로짓모형(MNLM)을 구성하여 그 참여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체험프로그램 도입 시 산촌 지역주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산촌체험관광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대한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은 남성일수록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의향뿐만 아니라 남성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는 기준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서 이해된다(박덕병과 조영숙, 2005). 그러나 이러한 남성 편중의 사회참여는 부정적 영향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 체험 프로그램의 성격과 방향 등 아이들에 대한 체험 해결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여성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농산촌 체험마을의 경우, 기존 산촌개발사업이 완료된 마을에 농촌체험마을사업이 투입된 신론·도원리와 탁장사마을에 비하여 산촌개발사업만이 이루어진 객현리와 병지방리의 경우에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체험프로그램의 유무가 방문자의 만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조사 당시 현재 체험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는 산촌의 경우에 향후 지역주민의 체험프로그램 추진과 참여에 대하여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정도에 따라서도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중졸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응답자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보다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에 있어서 학력수준이 높으면 오히려 사회적 참여에 관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기준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김경준, 1992; 이순전, 1977). 그러나 체험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농산촌지역의 고학력자

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이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사회적 참여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인구적 요인과 더불어 실질적인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은 체험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마을개발사업을 통한 마을 변화의 요인이 작용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보았을 때, 체험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서도 체험사업의 운영 자체와 관련된 요인, 예를 들어 체험시설의 낙후, 체험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운영비 부족, 마케팅 부족, 경험 부족, 교육프로그램 부재 등은 체험사업 참여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험사업 운영의 결과와 관련된 요인, 예를 들어 소득분배 문제 혹은 자연환경 훼손 등에서 문제성이 증가하면,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이 유의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을개발사업을 통한 마을 변화 중에서도 마을개발사업의 직접적인 투자효과와 관련된 마을의 일차적인 변화, 예를 들어 공공시설향상, 소득 증가, 일자리 증가, 외지인 방문 증가 등은 지역주민의 체험사업 참여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마을개발사업의 간접적인 투자효과와 관련한 주변환경개선, 주민 단결심, 마을 인심 등 마을모습의 이차적인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 체험프로그램 참여 의향 또한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을개발사업을 통하여 향후 산촌에 체험프로그램 도입 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자체 부분에 대한 고려보다 오히려 체험사업의 운영의 결과와 관련한 부분에 보다 집중적인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체험프로그램 운영 당시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던 소득분배 문제, 자연환경 훼손문제에 대해서 소득분배의 투명성, 자연환경의 지속적 관리 등을 통하여 문제가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마을개발사업의 효과적 측면에서도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투자효과보다는 간접적 투자효과에 관련한 부분이 체험프로그램에 지역주민을 참여케 하는 요인으로 보다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즉,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하는 교육과 홍보적 측면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특히 주민 간 대인적 신뢰를 높이는 폭넓은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주민의 심리적 결속력을 높여야 하겠다.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는 농산촌 체험관광사업을 마을단위에서 협조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결국 산촌에 있어서 체험프로그램의 도입은 산촌개발사업으로 인한 하드웨어적 기반 위에 산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접근이므로 여기에는 필히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부수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농산촌 체험마을 지역주민의 체험프로그램 참여의향을 체험사업 운영과 마을개발사업의 효과로서 설

명하고자 하였으나, 사회참여의 정도는 사회구성원의 사업목표나 사회집단의 성향 등에 의해서도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마을 구성원의 사회참여의 정도가 체험프로그램의 참여 정도에도 또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련성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보다 신뢰성 있는 모형구성을 위하여 거주기간, 결혼 여부 등의 측정 가능한 사회인구변수의 확장이 요구되며, 특히 연구의 시간과 비용 상의 한계로 인하여 체험관광 잠재력이 높은 수도권 근처의 마을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도출된 모형의 일반화를 위하여 계속적인 반복, 확대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결과의 보편신뢰성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인용문헌

1. 김경량, 최윤상, 홍성규(200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간평가체계 개발. *농촌계획* 12(2): 65-73.
2. 김경준(1992) 농촌자생조직으로서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참여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김종호, 서정원(2005) 일본의 산촌진흥법과 산촌진흥시책. *농촌관광연구* 12(2): 173-188.
4. 김혜민(2006) 농촌마을개발사업의 전개와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2(3): 1-11.
5. 박덕병, 조영숙(2005) 농촌주민의 지역사회조직 참여 실태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2): 61-73.
6. 박태운, 노경임(2004) 국내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환경복지독학기술학회지* 7(6): 94-103.
7. 산림청(2005) 전국 산촌진흥 워크숍. 산림청 연구보고.
8. 서정원, 김종호, 전준현, 김의경, 안기완(2006)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산촌진흥계획 방향 정립.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9. 안종현(2007)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장흥군 진목마을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2): 197-210.
10. 윤희정, 임승빈(2004) 녹색관광 자원유형분석 및 국내 적용가능성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2(4): 49-58.
11. 이경희(2004) 농촌관광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문화관광연구* 6(1): 333-343.
12. 이관규(2006) 시흥시 물왕저수지 생태관광 지원화 계획. *한국조경학회지* 34(4): 37-47.
13. 이순전(1977) 농촌여성의 사회참여와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이재준, 이상문(2003)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8(3): 39-55.
15. 전인철, 오형은, 조중현, 김용근(2007) 농촌관광마을 방문객의 공익적 기능 인식 평가-경기도 양수리, 주록리, 신론리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5(2): 81-90.
16. 주대진, 김진모(200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민참여 방법론 탐색.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2): 303-320.
17. 한국산지보전협회(2005) 산촌의 생태,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산지보전 및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산지보전협회 연구보고*.
18. 홍성권, 김성일(2002) 녹색관광의 참여의도에 관여하는 영향인자와 제한요소 규명. *한국조경학회지* 30(1): 18-28.
19. Archabald, K. and L. Naughton-Treves(2001) Tourism revenue-sharing around National Parks in Western Uganda: Early efforts to identify and reward local communities. *Environmental Conservation* 28: 135-149.
20. Brohman, J.(1996) New directions in tourism for Third World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 48-70.
21. Foskett, J. M.(1955) Social structure and social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 436-438.
22. Gottlieb, P. D.(1994) Amenities as an economic development tool: is there enough evidence.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8(3): 270-285.
23. Graves, P. E.(1983) Migration with a composite amenity: the role of rent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3: 541-546.
24. Hyman, H. H. and C. R. Wright(1971) Trends in voluntary association membership of american adults: replication based on secondary analysis of national sample survey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 191-206.
25. Keith, J. and C. Fawson(1995) Economic development in rural Utah: is wilderness recreation the answer? *Annals of Regional Science* 29(3): 303-313.
26. Keith, J., C. Fawson, and T. Chang(1996) Recreation as an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ome evidence from Uta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8(2): 96-107.
27. Krech, D., R. S. Crutchfield and E. S. Ballachey(1962) Individual in society: A textbook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 Hill.
28. Lankford, S. and D. Howard(1994) Developing a tourism impact attitude sca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 121-137.
29. Lee, D. and C. P. Mitchell(2007) Natural landscape of the Cairngorms National Park in Scotland-Its conservation and tourism.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Asia* vol. 3. Special edition 1: 171-179.
30. Linderberg, K. and R. Johnson(1997) Modeling resident attitudes towar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 402-424.
31. McIntosh, R. W. and G. R. Goeldner(1986) Tourism: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 (5th ed.). New York: Wiley.
32. Mitchell, R. and D. Reid(2001) Community integration: Island tourism in Peru.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 113-139.
33. Pearce, P. L., G. Moscardo, and G. F. Ross(1996) Tourism Community Relationships. Oxford: Pergamon.
34. Prentice, R.(1993) Community-driven tourism planning and residents' preferences. *tourism management* 14: 218-227.
35. Ryan, C. and D. Montgomery(1994) The attitudes of bakewell residents to tourism and issues in community responsive tourism. *Tourism Management* 15: 358-369.
36. Sheldon, P. and T. Abenoja(2001) Resident attitudes in a mature destination: The case of Waikiki. *Tourism Management* 22: 435-443.
37. Simmons, D.(1994) Community participation in tourism planning. *Tourism Management* 15: 98-108.
38. Tosun, C.(2000) Limits to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tourism development process in developing countries. *Tourism Management* 21: 613-633.
39. Whyte, W. F. and L. K. Williams(1971)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development: economic and noneconomic variables in rural development. New York: Macmillan.

원 고 접 수: 2007년 10월 30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7년 12월 28일

3인의 명심사필